

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11. 24.(수) 배포</p>			
보도일	2021. 11. 24.(수) 브리핑 시(10:00)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1. 24.(수) 브리핑 시(10:00)부터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교육과정정책과	담당자	과 장 신진수 (☎ 044-203-6433)	교육연구관 최영선 (☎ 044-203-7029)	교육연구관 전동호 (☎ 044-203-7143)

‘2022 개정 교육과정’ 총론 주요사항 발표 - 더 나은 미래, 모두를 위한 교육 -

- ◆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강화
 -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
 -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
- ◆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
 -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및 과목 선택권 확대
 -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 연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 도입
- ◆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·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
 - 학교 자율시간 도입, 시도별 지역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
 - 초등학교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,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 개선
- ◆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
 - 학습량 적정화, 비판적 사고 함양 및 탐구 중심으로 교수·학습과 평가 개선
 - 2022년 하반기까지 총론과 연계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확정·고시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1월 24일(수), 세종 해밀초등학교 (교장 유우석)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(위원장 박형주), 국가교육회의(의장 김진경)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(회장 최교진)와 함께 「2022 개정 교육과정」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, 학생·학부모·교원·각계 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

-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,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, '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'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되었다.

« 그간의 경과 »

- 이번 개정은 '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'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관리체계(거버넌스)를 구축하고 총론 주요사항 개발 및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.



- 다양한 분야(교육·학부모·환경·공간·인공지능 등)의 전문가로 구성된 '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(2021.4.~11./회의·서면 총23회)와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(13개 과제, 120여 명)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
 - 사회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(30여 명)된 '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'를 구성·운영(2021.4.~, 회의·서면 총10회)하여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다.
- 특히, 교육부, 국가교육회의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협력적인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대국민 설문조사(2021.5.~6. 10만여 명)와 국민·청년 참여단의 숙의·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,
 -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(네트워크)을 기반으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발 제안서 제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하였다.
-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다양한 소통(교육과정 포럼(2021.6.~, 4회)/학생·학부모 간담회(2021.8.~, 4권역)과 시도별 전문직·핵심교원을 대상(2021.7.~, 4권역)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.

- 이후 총론 시안 정책연구팀 주관의 공청회(2021.9.~, 9회)를 개최하였으며, 교육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교육과정심의회'(교과별 9.15.~10.19., 학교 급별 10.25., 운영위원회 11.15./11.22.)를 거쳐 확정하였다.

현장의 주요 의견

- **(학생)** 학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배웠으면 함 정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미래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,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과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과목 개발 필요
- **(학부모)** 체계적인 진로·진학교육 강화, 공감 및 상호 협력, 생태전환 등 지속가능한 교육 필요
- **(교원)** 토의·토론, 협력 수업, 실생활 및 체험수업 등 전환,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등
- **(전문가)** 미래 변화대응력 필요, 디지털소양 중요, 학습자 주도성과 공동체 가치 등 함양 등

<< 주요 개정 방향 >>

-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.
 - 이를 위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, 디지털 기초소양과 생태전환·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.
 - 또한 학습 부진 학생,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.
-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.
 -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,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 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.
- 지역·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한다.
 -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여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·운영,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,
 -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·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디지털·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·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.
 -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, 온·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,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·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.

<< 주요 추진 과제 >>

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

-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, 핵심역량, 교육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다.

■ 추구하는 인간상

- (핵심가치) 자기 주도성, 창의와 혁신, 포용과 시민성 중심으로
현행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재구조화

+

■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 개선

- 시민성,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
및 생태 감수성 등 반영 검토

- 언어, 수리,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,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.
- 인간과 환경의 공존,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.
 -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(全) 교과목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.
-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, 모든 교과*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.
 - * (예시) 학교급별 디지털 기초 소양 내용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
 - 또한,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·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※ (초중) 학교자율시간+정보(실과) 초 34시간, 중 68시간 (고) 정보교과 신설과 선택과목 개설 등
-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, 지역·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.
 - 학교급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및 초·중등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,
 -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.
 - ※ 과목신설 : (전문공통과목)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, (교양교과) 인간과 경제활동 등

-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확립하고 장애 특성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과 이외의 '일상생활 활동*'을 신설한다.

* 의사소통 방법, 자립 생활, 여가 활동,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

- 또한,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통합교육 기준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한다.

※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72.2% (70.864명)가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

2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·촉진하는 교육 강화

- 초·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고,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개선한다.

※ 교과(군) 및 창의적 체험활동 20% 범위 내 시수 증감, 수업량 유연화를 통한 학교 자율시간 확보

- 시도교육(지원)청과의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학교 자율시간 활용 모형을 안내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.



- 초·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.
 -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,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.
 - 초등학교 1~2학년 '즐거운 생활' 교과를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.

'즐거운 생활' 재구성 (현행) 80시간 → (개선) 128시간	+	안전한 생활 시수 중 일부(16시간)를 증배	=	즐거운 생활 내 144시간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※ 주 2회 이상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'즐거운 생활' 교과 재구조화

- 중학교는 자유학기를 개선하여 자유학기(1학년)*와 진로연계학기(3학년 2학기)로 운영하고, 편성 영역 및 운영 시수를 적정화한다.

* 주제선택 및 진로탐색 활동의 2개 영역으로 통합·운영하고 1개 학기 총 102시간 운영

- 또한,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린다.

-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*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.

* (현행) 자율 활동, 동아리 활동, 봉사 활동, 진로활동 4개 영역 → (개선안) 자율·자치 활동, 동아리 활동, 진로활동 3개 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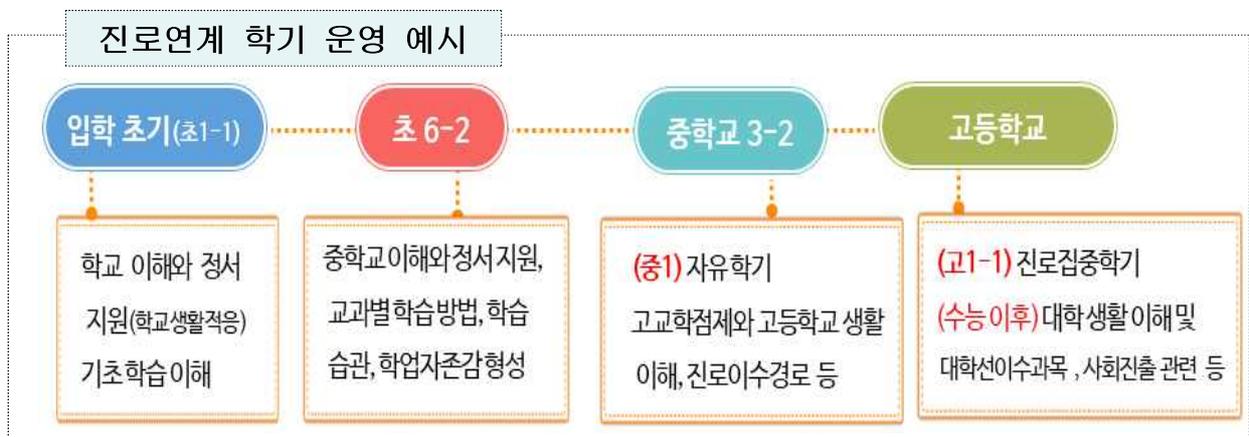
- **법교과 학습**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**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하여 반영**하고 중·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과 시수를 조정하는 **법령 정비** 등을 추진한다.

※ 타 법령에 명시되어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일몰제 부여 등 특별법 제정 방안 검토

③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

-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(초6, 중3, 고3)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 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,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.

-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, 학습법,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, 진로 탐색·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.



□ **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.**

- 고등학교의 수업·학사운영이 '학점'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,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(16+1회)에서 16회로 적정화하고,
 - 과목별 기본이수학점(5단위→4학점) 및 증감 범위를 조정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한다.
- 필수이수학점을 조정(94단위→84학점)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(86단위→90학점)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.
-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**공통과목 유지** 및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**일반 선택과목 적정화**하고,
 -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**융합 선택과목** 신설한다.
 - **다양한 진로관련 및 심화 학습**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고,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**전문교과 I**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**보통교과로 통합**한다.
- 지역 연계 **공동교육과정 운영** 및 **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**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**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**한다.

□ **직업계 고등학교는 신산업기술의 생성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하여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세부전공, 부전공, 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율이수 학점을 확대**한다.

※ 학습자 수준에 따라 **보통교과 대체 이수 과목**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 지원, 직업 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**직업기초 능력 함양**을 위해 **보통교과 내 진로 선택 과목** 신설

- 학교에서 **직업 세계로의 이행**에 필요한 직업 생활의 **공통 기본소양 함양**을 위해 **전문공통과목**을 세분화하고, 학생의 **디지털 소양 함양**을 위한 **전문교과 교육과정**을 개선한다.

※ (현행) 성공적인 직업 생활 → (개선)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, 디지털 정보 기술 등

4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

- 향후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.
 - 깊이 있는 학습, 교과 간 연계와 통합, 삶과 연계한 학습,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.
 -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,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.
 -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총론과 교과 간 연계 강화, 학습량 적정화 및 중복내용 해소,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동지침 제시 등 교과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.
 - 또한 총론과 교과연구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론 조정 연구 추진 및 합동 연수(워크숍), 전문가 협의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.
 - 시안 개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50% 이상 확보하여 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.
- 디지털 기반 교수·학습 혁신 및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.
 - 원격수업 등 교실 수업 개방성 증대와 디지털 기반(인프라)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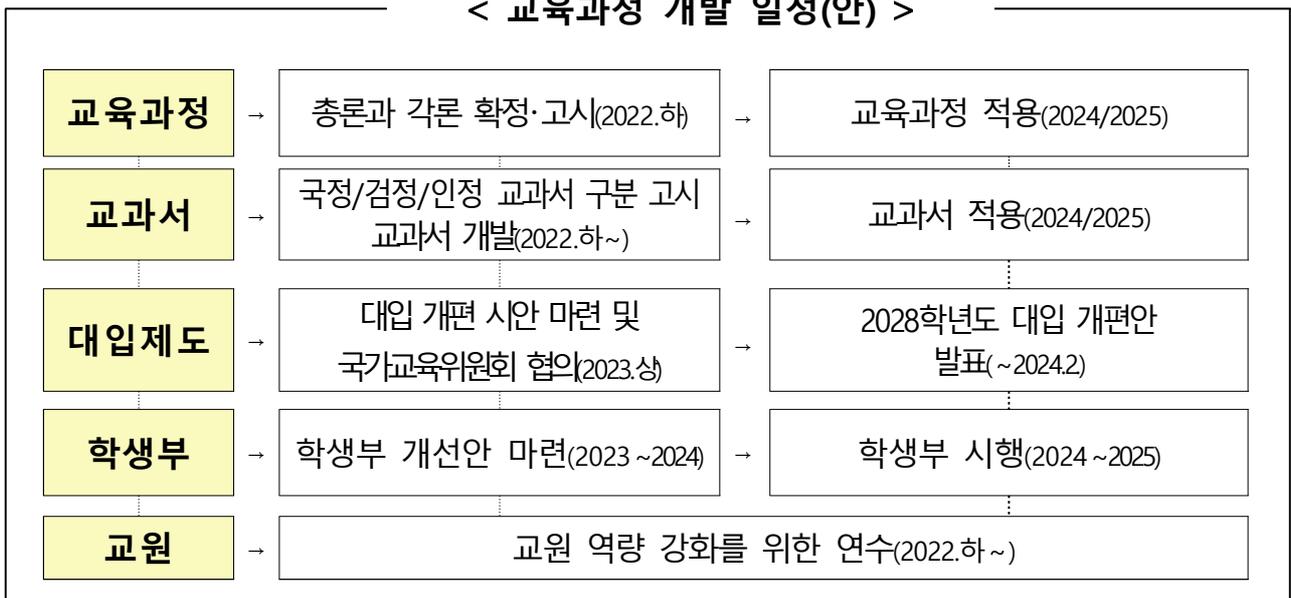
교육과정	교수·학습 및 평가	운영기반 마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온·오프라인 연계 등 원격 수업을 반영한 총론 교육과정 편성·운영기준 마련 ✓ 교과 교육과정 등에 다양한 원격수업유형 제시 ✓ 지역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한 온·오프라인 수업 및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다양한 원격수업 모델 및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✓ 빅데이터·AI의 맞춤형 교수·학습 및 평가 활용 ✓ 원격수업에서의 온라인평가 및 과정중심평가 등 활성화 ✓ 창의력, 비판적 사고력 등 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통한 출결, 평가 등 운영 ✓ 원격 수업 유형에 따른 다양한 학습 콘텐츠 개발 ✓ 다양한 원격 교수·학습 및 평가 모델 구안 ✓ 원격 수업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 지원

- 온·오프라인 각각의 특성을 최적화한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술(에듀테크)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·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한다.
- 비판적 사고력, 창의력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,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.

《 향후 계획 》

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의 개정 방향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(‘21.11월)한 이후,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.
 -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·고시할 예정이며, 2024년부터 초등학교 1~2학년, 2025년부터 중·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.
-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.
 -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.
 -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‘미래형 평가-대입 제도’ 개편을 추진하여 학교 수업의 다양화·개별화, 공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등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.

< 교육과정 개발 일정(안) >

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·학부모·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”라면서,

- “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“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개발 논의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다.”라면서,
 - “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나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‘총론 주요사항’을 토대로 굵은 가지를 뺀어 새 교육과정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-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“이번 국민 설문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권고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면서,
 - “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의 출범을 앞두고, 국가교육과정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- 최교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“시도교육감협의회는 토론회(세미나), 집중토론, 숙의 및 설문 등의 현장 연계망(네트워크) 1단계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교원들의 실천적 지혜를 담은 교육과정 총론을 제안하였고,
 - 현장 연계망(네트워크) 2단계 활동으로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각론 개발 방향 제시와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,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(시안)
 2.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친구대조표



□ 행사 개요

- (일시) '21.11.24.(수), 10:00~11:50
- (장소) 세종 해밀초등학교 다목적실
- (주요 내용)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및 교육 주체와의 정책 공감 대화
- (참석자)
 - 부총리, 박형주(개정추진위원장), 김진경(국가교육회의장), 최교진(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), 교원, 학생, 학부모 대표, 정책연구진 대표 등
 - ※ 온라인 참여 : 개정추진위원회 위원(20명), 정책연구책임자(11명), 참여위원(7명) 등

○ 세부 일정(안)

시간		주요 내용	비고
9:50~10:00 (10분)		· 방역 절차 후 등록	출입등록, 발열 체크, 손소독
10:00~10:05 (5분)		· 개회 및 국민의례, 참석자 소개	1부 사회: 교육부 대변인
[1부] 브리핑 ※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	10:05~10:15 (10분)	·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(부총리님)	
	10:15~10:30 (15분)	· 교육과정 개정 경과 및 주요 과제 - 박형주(개정추진위원장) ·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과 의미 - 김진경(국가교육회의 의장) · 교원의 숙의토론과 교육과정 자율화 지원 - 최교진(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)	
[2부] 정책 공감 대화	10:30~10:35 (5분)	· [영상] '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변화됩니다.'	2부 사회: 황규호 (이화여대 교수, 정책연구진 대표)
	10:35~11:30 (55분)	· 정책 공감대화(부총리님, 패널) - (주제) 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의미와 지향점, ② 미래교육으로의 전환과 2022 개정 교육과정 · 자유 발언 · 마무리 말씀	
[3부] 질의 응답	11:30~11:50 (20분)	· 질의 응답	3부 사회: 교육부 대변인